

## 사도행전에 숨겨진 땅끝복음화의 방법과 비밀

### -복음으로 여는 사도행전-

이사야 49:6, 사도행전 1:8

정윤돈 목사님

\* **사49:6**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야곱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 **행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준거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가장 행복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축복도 약속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리석고 불신앙하며 불순종하다가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수만 가지 고통을 당하며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하시며, 또한 절대불가항한 영육 간의 부분이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이 주신 천명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올인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많이 갈등하고 아파하며 어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오해와 예배와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는 절대계획과 이유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많은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레마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도전하고 성취하는 말씀성취의 응답을 체험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 들어가는 말씀 :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유산과 증인의 삶

1. 후대에게 전달해야 할 믿음의 유산 오늘날은 어린이주일이다. 전도사시절 어느 기도원에 갔을 때의 일이다. 아이들이 피아노 뒤를 가리키며 전도사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여 살펴보니, '정윤돈'이라는 흔적 많은 이름이 적혀 있었다.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그 기도원에 오셔서 작정하고 피아노를 헌물하신 것이었다. 이처럼 부모님이 믿음으로 심은 것은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으로 돌아온다. 그러므로 부모들은 후대들에게 믿음을 보여주어야 하며, 그 핵심적인 방법이 바로 '말씀포럼'이다. 강단 설교를 듣고 내가 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이 살아있는 포럼이 된다. 설교의 기술이나 화려함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이의 영적 상태이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발견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될 때 능력 이 나타난다. 부모는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성취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2. 어머니의 기도수첩과 응답의 포럼 설교자의 어머니에게는 '꿈 책'이라 불리는 기도수첩이 있었다. 어머니는 항상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며 기도하셨고, 응답받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포럼하셨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남을 돕고라 빛을 남기고 하고 무시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결코 돈이 없다는 소리를 하지 않으셨다. 오직 하나님의 응답만을 증거하셨다. 한번은 초등학교 시절 어머니께서 내일 당장 천만 원을 갚아야 하니 기도하라고 하셨다. 어린 마음에 걱정이 되어 공부와 안될 정도였는데, 학교에 다녀오니 어머니께서 응답받았다고 기뻐하셨다. 어떻게 해결했느냐고 물으니 교회대금인 '달라리아'를 빌려 갚으셨다는 것이었다. 어린 마음에도 그것이 진정한 응답인지 의문이 들었으나 어머니는 부채도 자식아라며 하나님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잃지 않으셨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다. 어머니는 고아원 원장제로 오랫동안 사역하셨는데, 그곳에는 많은 불신자 직원이 들어왔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모두 실업조를 하는 신자로 변화되었다. 어머니의 진솔한 포럼과 헌신, 그리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증거들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고아원 선생님을 중 15명 이상이 나중에 목회자 사모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전도한 수준을 넘어 삶을 통해 말씀성취와 기도응답을 보여줌으로써 한 시대를 살릴 제자들을 길러낸 것이다. 여러분도 이처럼 복의 근원이 되어 말씀과 기도를 따라갈 때 일어나는 대역사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한다. 항상 이 비전 속에서 살아가길 바란다.

3. 매우 쉬운 일인 선교와 전도 최근 성도들과 함께 홍콩으로 전도캠프를 다녀왔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49장 6절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야곱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이라고 말씀한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홍콩에 교회를 세우고 집회를 하려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응답으로 나타난다. 홍콩 현지에서 구급 지도를 이용해 맛집을 찾고 길을 찾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다. 매킨트들이 앞장서서 모든 것을 찾아내니 어른들은 그저 질문만 하면 되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야 한다. 성령의 인도와 믿음, 언약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리고 살아 가면 전도와 선교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여정이 매우 쉬운 일이 된다. 설교자의 어머니는 훌륭한 믿음을 보여주셨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확한 복음의 내용, 즉 예수가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라는 성경적 전도방법을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지는 못하셨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충성을 보시고 부족한 자를 복음을 전하는 목사사로 세워 완벽하게 인도해 주셨다. 세상에 나를 이끌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성경의 인물들처럼 혼자였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셨다. 그러므로 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바란다. 부모조차 자녀를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 오히려 부모가 방해가 되니 자녀를 건드리지 말고 내버려 두고 기도만 하라고 전한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4. 모니카의 기도와 어거스틴의 회심 교회사에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기도의 여인으로 유명하다. 아들이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단인 마니교에 빠져 9년 동안 헤매 때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했다. 아들이 로마로 떠나려 할 때 어머니는 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아들은 배를 타고 떠나버렸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제목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더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 로마로 간 어거스틴은 위대한 스승 암브로시우스를 만나 로마에서 13장 말씀을 통해 거듭나게 되었고, 훗날 루터와 칼빈에게 영향을 주는 종교개혁 신학의 뿌리가 되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대로(大路)를 여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5. 시대적 요청과 인생의 땅끝 발견 현재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은 중국 전체를 먹여 살리는 허브이자 '일'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홍콩의 금융과 무역 기능이 마비되면 중국 전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정도로 이곳은 중요한 요충지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홍콩을 세계복음화의 대로를 열 수 있는 현장으로 예비하셨다. 비단 홍콩 뿐만 아니라 뉴욕, LA, 영국, 프랑스 등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이 시대의 '로마'다. 자유의 현장과 문화의 현장 모두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하신 말씀을 성취해야 할 땅끝이다. 성도들이 인생을 힘들고 어렵게 느끼며 갈등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만의 '땅끝' 즉 인생을 살아야 할 사명과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이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만 머물러 있으면 모든 일상이 고민과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설교자 역시 과거에 부모님이 평생 남을 돕고라 집 한 채 없이 사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살아도 되겠습니까?"라고 하나님께 질문한 적이 있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나 역시 머리 곳이 없었노라"고 말씀하시며 사명자의 삶은 세상적인 소유에 매여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셨다. 성령충만하여 오직 주님과 복음만을 바를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새와 들의 꽃을 입히시며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책임지신다. 솔로몬의 영광조차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 앞에서는 비교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복음만을 선포할 때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희망 있는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과거 영국이 아편전쟁을 통해 무력으로 홍콩을 차지하던 시대는 이미 지났다. 지금은 무력이 아니라 IT, 문화, 기술로 세계를 정복하는 시대다.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라는 위대한 계획을 완수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AI와 IT의 허브로 삼으실 것이다. 실제로 전 세계적인 전쟁과 위기 속에서도 대한민국은 현재 무역수지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제적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고 계시는 증거다. 성도들은 현실의 어려움에 속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깊은 호흡과 기도를 통해 성령충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하신 약속대로 모든 물질과 축복, 그리고 만남의 문이 훌훌하게 열릴 것이다.

6. 선교여행의 가치와 참된 행복 홍콩집회를 비롯하여 선교현장에 갈 때마다 성도들이 직접 그 현장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누릴기를 바란다. 성도들과 함께 떠나는 선교여행은 가장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현장의 응답을 함께 체험하는 소중한 기회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유흥 목적의 여행보다 선교여행에 동참하기를 권면한다. 이번 하로시마 일정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방 전도와 위트니스를 진행하는 전도캠프를 계획하고 있다. 장로님들과 협의하여 참가자들에게 경비의 절반을 지원함으로써 더 많은 성도가 현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단순히 놀러 가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란다.

7. 선교의 문이 열리는 '매우 쉬운 일'(언어와 기술) 성령이 임하시면 선교와 전도는 매우 쉬운 일이 된다. 파키스탄에서 오신 마리아 목사님은 한국말을 매우 잘하시는데 이처럼 언어가 통하면 사역은 아주 쉬워진다. 최근 홍콩현장을 보니 공산화 이후 많은 이들이 해외로 떠나고 중국 본토 사람들이 유입되면서 영어를 못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어로 들어오고 있다. 과거에는 세계복음화가 어렵게 느껴졌을지 모르나 이제 는 한국말을 배운 이들에게 복음만 전하면 되기에 매우 쉬운 일이 되었다. 또한 IT와 AI기술의 발달로 번역이 용이해져 언어의 장벽을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응답이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한다.

8. 나만의 '땅끝' 발견과 사명 성도들은 각자 정복해야 할 '땅끝'을 발견해야 한다. 강대국과 약소국, 엘리트와 무능한 자, 청소년, 정치·경제·문화현상이 모두 땅 끝이다. 도박, 마약, 알코올 중독의 현장, 공산주의 이념, 무슬림·불교·힌두교 지역, 무속, 점술, 우상의 현장, 불치병과 난치병의 현장, 그리고 가정과 부부관계까지 지도 우리가 살려야 할 땅끝이다. 설교자의 아버님은 20년 동안 복지사역을 하시며 돈을 벌기보다 늘 빛을 지켰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정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이었으나 복음으로 결론을 낸 아버님은 아버님을 한 번도 비난하지 않으셨다. 복음으로 결론이 나면 부부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이 정복해야 할 언약적 땅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상의 작은 일로 갈등하는 것이다. 자살, 정신병, 불안장애, 우울증의 현상이 우리의 땅끝임을 발견하고 그곳에 생명을 걸 이유를 찾는다면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9. 성공의 원리와 복음의 집중(누가와 데오빌로) 이번 캠프에서 만난 한 장로님은 고향 교회 램프 4명의 경비를 모두 부담하여 선교지에 초청하셨다. 그분에게 돈을 버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어떤 이들은 기회를 놓쳤다고 한탄하지만 준비된 눈으로 보면 세상은 돈 벌 일들로 가득하다. 주식시장의 전문가들도 많이 잃어본 사람이 나중에 더 많이 번다고 말한다. 단순히 돈을 잃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여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이다. 복음도 마찬가지다. 누가는 단순히 복음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 포럼하고 내용을 정리하여 복음을 '나의 것'으로 만들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리되어 있으면 로마시대의 최고 엘리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일이 된다.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리며 복음을 준비해 온 성도들에게 전도는 매우 쉬운 일이 된다. 30년 동안 복음을 듣고 각인한 성도들은 현장에서 천제적인 응답을 누리게 된다.

#### 서론 : 성경적 전도운동의 핵심 내용

사도행전에는 세계복음화의 놀라운 방법과 내용이 담겨 있다. 누가는 이 내용을 정리하여 데오빌로 각에게 전달했으며 이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지속될 전도와 선교의 방법이다. 이번 선교 여정 중에도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그대로 체험했다. 공항에서 안성일 목사님을 만나 30분 동안 포럼을 하고, 비행기 옆자리에서 미국으로 가는 부목사님을 만나 다시 포럼을 이간한 것은 완벽한 성령의 인도였다. 24시간 현장을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세밀한 만남의 축복을 통해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신다. 많은 사람이 말씀 받고 훈련 받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

것은 성령인도 받는 것이 아니다. 그저 같습니해서 그런 것이다. 응답의 방법은 나를 버리고 언약과 강단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강단메시지에 불순종하고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는 체질을 버리고 순종과 복종을 배워야 한다. 이슬람의 '무슬림'이라는 단어조차 '순종하는 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 밖에서는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정작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마귀의 방법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조금만 깨닫고 말소에 복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대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아무리 물이 많아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이 나오지 않듯이 영적 비밀을 알아야 응답을 누릴 수 있다. 은혜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인출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반복해서 말한다고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감춰진 참된 비밀과 능력을 실제로 알고 믿어야 한다.

## 1. 사도행전에 숨겨진 성경적 전도운동 57지

사도행전에는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이 숨겨져 있다. 그것은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지교회와 다섯 가지 전략이다.

1) 다락방(Darak) 다락방은 단순히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장소가 아니다. 다락방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의 모임이다. 자녀나 직장, 그 어떤 삶의 조건보다 예수님을 우선하며 이 예수가 왜 그리스도이신지 그 답이 나올 때까지 현장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곳이 다락방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결론을 내지 못하면 그것은 결국 사단을 이길 수 없는 종교생활에 불과하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이들은 목숨을 걸고 오직 예수의 부활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올인했다. 로마의 팍파 속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에 사는 이유를 두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자가 모든 문제의 끝이라는 결론이 나면 세상의 염려나 연애, 경제적 문제 등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배와 훈련을 지속하다 보면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시간표가 온다.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그 안의 보화를 발견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팀사역(Team Ministry)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실 때 항상 팀 형성을 먼저 해주셨다. 마가다락방의 팀, 베드로 팀, 바울 팀이 그 예이다. 이번 홍콩 선교캠프 팀을 통해서도 확인했듯이, 팀구성이 잘 되면 출발할 때부터 큰 응답이 예상된다. 내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외국어를 못 해도 팀원 중에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곧 응답이자 만민의 축복이다. 팀 안에는 사명자 뿐만 아니라 새가족, 상처 받은 자, 믿을 없는 자들이 섞여 있다. 이때 사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상처의 틀린 생각이나 부정적인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린 복음의 증거를 포럼해서 그 사람 안의 불신앙과 흑암이 꺾이게 해야 한다. 설교자의 어머니가 직장에서 동료교사들에게 삶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었을 때, 불신자가 목사 사모가 되는 대역사가 일어난 것과 같다. 어떤 팀을 이루고 누구를 만나느냐에 달려 있다.

3) 미션홈(Mission Home) 가장 중요한 전도방법의 하나로, 가정(집)에서 말씀 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시작하는 것이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증인이 되고 제자가 되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이를 막을 수 없다. 마가의 집은 예루살렘 교회가 되었고, 빌립보 루디아의 집은 마케도냐 복음화의 센터가 되었다. 야손의 집 또한 데살로니가 복음화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했다.

4) 전문사역(Specialized Ministry) 사도행전의 세계복음화는 엘리트들과 전문 산업인들을 통해 이루어졌다. 누가는 의사였고 데오빌로는 고위 정치지도자였으며, 바울 역시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다. 세상적으로 지식 있고 대안해 보이는 엘리트들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상처가 많고 마음이 좁은 경우가 허다하다.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익 밖에 모르거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의 권력이나 지식인들을 고쳐주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실력이 없거나 그릇이 작아도 상관없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들을 대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그들을 살릴 수 있다.

5) 지교회(Regional Church) 이러한 복음의 사랑을 가지고 곳곳에 시스템을 세우는 것이 지교회운동이다. 현장마다 복음의 땅대를 세워 지속적인 생명운동을 이어가는 것이 성경적 전도운동의 최종적인 방향이다.

## 2. 성경적 전도운동의 핵심 내용

전도시스템을 세워 나가는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집약되어 있다. 이는 곧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충만을 의미한다.

(1) 오직 그리스도(사도행전1:1)

(1)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정리 성경적 전도운동의 첫 번째 핵심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그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인간의 불신앙과 죄, 그리고 사단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참 왕이자 참 제자이시며 참 선지자이시다. 사도행전의 기록자인 누가는 먼저 누가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하여 면밀히 공부하고 정리하여 데오빌로 각하게 전달했다. 우리 또한 복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먼저 잘 정리되어 있어야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증인이 된다.

(2) 전도의 본질 전도는 나 자신이나 우리 교회를 선전하는 것이 아니다. 우주 만물을 단번에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전도의 본질이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과 포럼을 하던 중에 동네에서 가장 악한 사람을 찾아 전도해 보자는 미션을 주었다. 목사님 스스로도 그 대상을 찾아 나섰고, 수소문 끝에 한 알코올 중독자를 소개받았다. 그 집을 찾아가 아내에게 "이 동네에서 가장 못된 분이 여기 사느냐"고 묻자, 아내의 남편이 맞는 것 같더라 남편을 불러냈다. 그런데 그 남편은 뜻밖에도 자신의 삶에 깊이 회의를 느끼고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나 같은 인간도 술을 끊고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말하며 미안함을 전하던 찰나에 목사님을 만난 것이다. 목사님은 자신 또한 과거에 악한 죄인이었으나 주님의 사랑으로 목사가 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 이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못된 죄인일 수밖에 없으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

(2) 하나님의 나라(사도행전1:3)

(1) 생명운동과 흑암의 물과 하나님의 나라는 현장에서 생명운동과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을 보면 바울 팀이 가는 곳마다 무속, 절술, 우상 등 사단의 문화가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처럼 복음의 능력으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길 축원한다.

3) 성령충만(사도행전1:8)

(1) 세밀한 인도와 말가는 삶 전도와 선교, 치유와 행복의 모든 역사는 오직 성령충만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세

밀하게 인도받아야 한다. 성령인도를 받는데 있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조급함'이다. 기도의 생명줄을 잡고 깊은 호흡을 병행하며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순간적으로 타치는 문제와 격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찾아오는 평안함이 곧 응답의 시작이다. 해의에 나가면 처음에는 현지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지만 며칠이 지나면 속이 답답해지고 한국음식이 간절해지기 마련이다. 가슴이 막히고 음식이 넘어가지 않는 영적-육체적 상태가 되었을 때, 한국에서 가져간 매운 컵라면 하나를 먹으면 이마에 땀이 나고 혈액이 순환되면서 마치 성령충만한 상태처럼 몸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한다. 선교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 성도들과 함께 주야를 먹으며 교제할 때, 비로소 '원래의 나'로 돌아온 듯한 최고의 평안을 느낀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복음의 본질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없다.

4)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기도(사도행전1:13-15)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은 절대 절망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약속하신 성령충만을 기다렸다.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곧 믿음이다.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기보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완벽한 응답이 올 것을 믿어야 한다. 무조건 주님을 바라보며 인생과 미래를 맡겨야 한다. 인간이기에 때로는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으나, 눈에 보이는 모든 한과 사건을 기도로 바꾸어야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홍콩을 비롯한 70개 나라의 현장 문을 여실 것이며, 세계복음화를 위한 3,000제자를 세우실 것이다. 237나라와 5,000종족, 1,000만 제자를 세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구교회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도록 기도해야 한다.

5) 인생의 절대목표 : 땅끝의 발견

(1) 사명중심의 인생목표 단순히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내가 편하고 잘되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 사명을 발견해야 한다. 나에게 주신 땅끝 현장을 살리는 일에 열매가 있어야 한다. 과거 독립운동가들이나 특정 분야의 연구자, 정치인, 교수들이 자신의 현장을 살리고자 했던 것처럼 나의 목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나,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아야 비로소 행복해진다.'

(2) 비전이 없는 영적 상태의 치유 우울증과 답답함에 빠진 이들의 특징은 하고 싶은 일이 없다는 것이다. 언약 안에서 도전할 꿈과 비전(CVDIP)이 없기 때문이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도 꿈을 꾸게 된다. 나이와 상관없이 생각이 젊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자가 진정한 청년이다. 성령의 역사로 24시간 설렘 속에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3) 땅끝, RUTC, 로마 홍콩의 수많은 빌딩을 보며 랩터트들과 함께 비전을 나누었다. 50-60층 규모의 빌딩을 우리가 사서 세계복음화의 거점으로 삼아야 한다. 현찰과 용자를 활용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중직자와 랩터트들은 전 세계에 이러한 RUTC를 세우는 꿈을 꾸어야 한다. 탁평의 산골짜기뿐만 아니라 홍콩 디즈니랜드 옆과 같은 세계적 요충지에 빌딩을 세워 복음운동의 허브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목표인 '로마'를 미리 보고 있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27장 24절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며 로마를 언급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인생의 땅끝, 즉 '절대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단순히 어느 수준을 넘어 그 목표를 기도로 미리 보았고, 장차 임할 천 년의 응답을 현재에 미리 누리며 그 비전 앞에서 항상 설레는 마음을 가졌다. 실제로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중직자들과 후대들이 훗날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하여 변화시킨 역사를 보면 바울의 비전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절대목표를 명확히 발견한 사람만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로서 언약의 여정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다. 홍콩 구룡반도 빅토리아 하버에서 요트를 타며 여행했다. '빅토리아'는 여왕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본래 '승리(Victory)'를 뜻한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한다. 과거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영국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통해 말씀을 정리했을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축복을 누렸듯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21세기에 그 이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 3. 현장의 비밀과 만남의 축복

1) 회당전략과 문화현장(사도행전17:1, 18:4, 19:8)

사도 바울은 안식일마다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회당은 당시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자 정치, 학문, 문화의 중심지였다. 바울은 그곳에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했다. 세상의 지식과 정치 논리로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으며 로마 제국을 살릴 수 없음을 알았기에, 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것이다.

(2) 예비된 제자회의 만남

(1) 전도는 예비된 자를 찾는 것 선교현장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갑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들이 반드시 숨겨져 있다. 그래서 전도는 '매우 쉬운 것'이다. 우리가 억지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된 자를 만나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지 때문이다. 오늘 군대에 입대하는 아주형 랩터트에게도 말해주고 싶다. 군생활을 힘들게만 생각하면 마귀에게 속게 되지만 그곳에 숨겨진 제자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가장 행복한 군생활이 된다. 만남의 축복이 곧 성공의 비결이다.

(2) 성경적 만남의 축복사례 사도행전에는 만남을 통해 지역과 민족의 운명이 바뀐 사례가 가득하다. ① 백부장 고넬료(행10장) : 로마 군인복음화의 문이 열림. ② 디모데와 루디아(행16장) : 유럽복음화의 중요한 제자들과의 만남. ③ 야손(행17장) : 데살로니가 사역의 중심인물. ④ 브리스가와 아굴라(행18장) : 바울의 평생 동역자로서의 만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면 지역과 세계복음화는 너무나 쉬워진다. 이러한 만남의 응답을 누리기를 축원한다.

## 결론

사도행전에 숨겨진 성경적 전도운동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하여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과 비밀한 방법들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이 소중한 사도행전 안의 복음과 성경적 전도운동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비밀을 한국 교회와 전 세계 237나라, 5,000종족에게 전달하는 것이니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먼저 세워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과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